산란종계 사육동향과 산란계 불황 대책

환우증가 현상 뚜렷, 계란품질 저하 등 악순환 이어져…

김 종 목
(조인(주) 영업부장)

최근 축산업의 시장상황이 혼돈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세의 널뛰기가 계속되고 있다. 산란업의 경우는 최근들면서 난가가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의 상승과 계란의 DC폭이 벌어지고 있어 산란업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현상은 IMF 경제위기를 격고난 이후에 경영상태가 부실해지고 생산성이 약화되어 농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고, 더욱이 생산과잉과 소비부진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산란업계는 경기예측 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계업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IMF 사태 이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우리 산란업계 종사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제부터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 산란계업에 종사하는 생산농가, 부화장, 유통업 종사자, 관련업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난국을 극복해 나아가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 산란종계 품종의 변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의 품종으로는 로만브라운, 보아스브라운, 이사브라운, 하이라인 등이 있다. 또한, 부화장은 다산부화장(구태영농원), 대구경북양계농협, 봉산부화장, 신진농원, 양지부화장, 에그원, 조인(주)(구 강남농장), 한국양계티에스(구 한양부화장)으로 품종의 구성은 5개부화장이 하이라인을 사육(65%)하고 있으며, 1개부화장이 로만브라운(25%)을 사육하고, 기타 부화장에서 이사브라운과 보아스브라운(10%)을 사육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양계업의 급박한 경기상황을 보여주듯이 경영부실로 인하여 지난해 3개부화장이 부도를 경험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개명을 하

여 재기를 노리고 있는 부화장도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부화장이 부도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보여준 것은 산란업계가 그 동안 긴 시간동안 어려움이 지속되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산란종계 사육동향

산란종계는 지난 IMF이후 급격한 입식 감소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로인해 산란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입식이 늘었고 이후 경기의 흐름에 따라 사육수수의 증감이 해마다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표1에서 볼때 산란종계 입식현황은 격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14.6%가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3.4% 감소, 2001년에는 23% 증가, 2002년은 10.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란가격도 이에 따라 변동을 거듭해 오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6개월령에서 16개월령까지 실제 병아리를 생산하는 가임종계수자를 환산해 보더라도 격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9년에는 전년에 비해 2.6%가 감소했으며, 2000년에는 15.4% 증가, 2001년에는 17.3% 감소, 2002년은 21% 증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표2).

그러나 표2에서 실제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 종계의 수치가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조기 도태되거나 생산중단 등으로 실제보다 15%정도가 감소하면서 초생추 생산 잠재력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1. 산란종계 최근 5년간 입식현황 단위 : 천수

구 분	02년	01년	00년	99년	98년
1월	23	41	80	121	26
2월	59	35	0	46	17
3월	89	22	56	53	80
4월	0	59	41	0	20
5월	43	61	52	39	82
6월	53	43	30	0	10
7월	35	25	33	155	21
8월	23	79	46	54	78
9월	63	8	34	20	38
10월	38	39	67	93	87
11월	28	69	28	20	34
12월	41	45	20	35	64
계	493	599	487	636	555

표2.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산란종계 사육현황

단위 : 천수

구 분	03년	02년	01년	00년	99년	98년
1월	534	434	459	585	346	545
2월	487	479	486	602	424	598
3월	512	493	427	585	450	544
4월	481	504	473	645	466	516
5월	463	553	467	601	441	492
6월	481	557	407	514	479	531
7월	448	545	448	548	584	500
8월	407	582	427	496	550	421
9월		612	408	552	582	465
10월		551	415	553	500	471
11월		550	446	605	529	520
12월		578	456	480	508	416
계	3,813	6,438	5,319	6,766	5,859	6,019

표3. 산란계 초생추 최근 5년간 입식현황

구 분	입식수수(천수)	전년대비증감
98년	35,275	10.3%감소
99년	35,595	1%증가
00년	35,697	0.3%증가
01년	30,632	14.2%감소
02년	30,650	0.6%증가

실제적으로 표3에서 보면 최근 2년간 2000년에 비해 초생추 입식이 14%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병아리 수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계란가격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를 풀어가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3. 장기 불황의 문제점

산란계 초생추 입식에서 보았듯이 최근 2년간 병아리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가가 원가이하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경기위축에 의한 소비감소의 원인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양계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환우와 사육기간 연장에서 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1) 환우증가

월간양계 2002년 9월호에 게재된 환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고주령 계군의 강제환우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환우를 한다가 28.7%, 상황에 따라가 46.5%, 안한다가 2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제환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사육연장이 32.7%, 사양관리 문제가 29.7%, 저난가가 24.8%, 노계가격 하락이 12.9%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환우를 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최근들면서는 50%에 상회하는 농가들이 환우를 강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저난가 지속과 노계출하지연 등에 따라 피치못해 2차 환우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노계출하 지연

노계는 도계장(노계처리장)에서 도계공정을 거쳐 계정육을 생산한 후 육가공원료로 납품하거나 일부 닭날개는 태국 등 일부지역에 수출하고 있으며, 부산물은 개사료 등 사료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육가공공장에서 돈육하락에 따른 계정육의 이용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계정육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재고가 가득 쌓여있는 실

정이며, 제때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정육의 품질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육용종계 도태사업도 산란노계 출하지연을 부추겨 육계의 불황이 산란업의 불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재로 작용해 온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3) 소비감소 심각

정부시책에 의한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지난해에 있었던 월드컵, 대선 등이 이어지면서 가정소비의 주를 이루고 있는 계란이 외식소비에 밀려 소비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함께 환우 등에 따른 사육기간 연장으로 계란의 품질이 떨어져 계란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4. 해결방안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무척 난해한 일이지만, 그래도 당면한 문제는 우리 산란계업계에 종사하는 관련인들이 풀어가야만 한다.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산란초생추 생산이 2년간에 걸쳐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생산이 줄지 않고 원가이하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은 노계처리에 대한 대처가 안일했으며, 환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산란업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계처리 작업이 활성화되면 어느정도의 1, 2차로 이어지는 환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는 도계장에서 노계를 전량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외국의 경우처럼 식용처리 보다는 사료화하거나 퇴비화하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지금과 같은 악순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계란의 품질향상에도 서로같이 노력한다면 외면하고 있는 소비자도 우리에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어둡고 무거운 긴 터널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이 때일수록 서로 힘을 모아 문제점 해결에 한층 다가서는 지혜를 기대해 본다. **양계**